

차준환 남자 피겨 최초 GP 파이널 동메달

김연아 이후 9년만의 쾌거...총점 263.49점 쇼트 프로그램 4위 프리 '개인 최고점' 역전

‘피겨왕자’ 차준환(17·휘문고)이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차준환은 지난 8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총점 263.49점으로 남자 싱글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은 시즌 ISU 그랑프리 7개 대회의 성적을 합산해 상위 6명만이 출전하는 ‘왕중왕전’으로 한국 남자 선수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딴 것은 물론 출전한 것도 차준환이 처음이다.

남녀를 통틀어서도 2009-2010 ‘피겨퀸’ 김연아의 메달이 마지막이다. 김연아는 4번의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거머쥐었다.

시니어 2년 차인 차준환은 처음 출전한 파이널에서 메달까지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명 중 4위를 했던 차준환은 이날 프리 스케이팅에서 훌륭한 연기로 역전에 성공했다.

6명의 선수 가운데 두 번째로 ‘로미오와 줄리엣’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맞춰 프리 스케이팅 연기에 나선 차준환은 기술점수(TES) 91.58점에 예술점수(PCS) 83.84점, 감점 1점을 합쳐 174.42점을 받았다.

차준환이 지난 9월 어텀 클래식에서 기록한 프리 최고점 169.22점, 총점 259.78점을 모두 경신한 개인 최고점이었다.

첫 점프였던 쿼드러플(4회전) 도루프 점프에서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어 감점 1점을 받고 수행점수(GOE)도 깎였지만 곧바로 추스른 침착함이 돋보였다.

차준환은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뛰어 가산점을 챙겼고, 이어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지난 8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남자 싱글 동메달을 획득한 차준환이 태극기를 펼쳐보고 있다. /연합뉴스

깨끗하게 성공했다.

물 흐르는 듯한 스텝 시퀀스와 스핀, 코레오 시퀀스에 이어 트리플 악셀-더블 도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셀, 트리플 플립-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도 실수 없이 뛰었다.

마지막 트리플 루프 점프도 성공한 차준환은 스핀과 함께 강렬하게 연기를 마

쳤다.

최선을 다한 차준환은 나머지 선수들의 결과를 기다렸고, 전날 쇼트에서 차준환에 앞서 3위였던 미할 브레지나(체

코)가 첫 점프 실수로 차준환보다 낮은 점수를 받으며 차준환이 동메달을 확보하게 됐다.

차준환은 동메달을 목에 건 후 “첫 파이널 도전에서 동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준환은 “연습 때 컨디션이 좋았는데 첫 점프에서 실수해서 화가 났다”며 “하지만 연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루틴에 따라 집중하려 했다”고 말했다.

전날 쇼트 이후 “프리 스케이팅을 즐기고 싶었다”고 했던 차준환은 “즐거웠지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남자 싱글 ‘최초’의 성과를 연이어 내는 차준환에게는 17세 소년에게는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는 ‘개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차준환은 그러나 “부담은 있지만 그 부담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로 만들려고 한다”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이날 금메달은 총점 282.42점을 받은 미국의 ‘점프 천재’ 네이선 첸이 차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우노 쇼마(일본)가 275.10점으로 은메달이었다. 첸과 쇼마는 프리 스케이팅에서 모두 4개씩의 쿼드러플 점프를 뛰었다. /연합뉴스

광주국제양궁장 도쿄올림픽 전훈·베이스캠프 주목

국제 인프라·한국 대표급 선수와 훈련 일석이조 오늘부터 중국선수단 90여명 16일간 전지훈련

2020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양궁도시’ 광주가 해외선수단의 전지훈련지와 베이스캠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현지와 시차가 같고 기후 조건이 비슷해 광주국제양궁장이라는 인프라, 기보배와 최미선을 배출한 한국 최고 실력의 광주시청·광주여대 선수들과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양궁협회에 따르면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중국 양궁 선수단 90여명이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중국 선수단에는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우 자선과 지난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장신아연 등 중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광주시청, 광주여대, 광주시체육회 선수들과의 교류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광주-중국 양궁교류전은 지난 7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국가대표 총감독에 선임된 이양우 감독과 광주시양궁협회의 지속적인 우호 교류

가 결실을 맺은 결과다.

이양우 감독의 조련 아래 아시안게임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중국 체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양궁은 내년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0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 프로젝트 일환으로 광주 전지훈련을 계획했다.

세계최강 한국양궁의 주역인 기보배(광주시청)와 최미선(광주여대)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평소 연습하는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훈련을 하고 선진 양궁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광주국제양궁장은 도심 속 최고의 시설을 갖춘 전천후 경기장과 반경 10km안에 5성급 호텔 4-5곳이 자리한 우수한 인프라와 원활한 교통시스템을 구축,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중국 상해 여자양궁팀 선수들이 중국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주국제양궁장 개장 이래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광주-일본 체육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100여 명의 일본 양궁 선수단이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했으며 내년 1월에도 중국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20여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은 광주시양궁협회 전무이사는 “1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해외 선수단이 광주에서 14박15일 일정을 소화하는 교류행사는 처음”이라며 “광주를 찾는 중국 선수단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정해영 김기훈 2018 최우수선수상

〈광주일고〉 〈동성고〉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14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

동성고 투수 김기훈(3년)과 광주일고 투수 정해영(2년)이 2018년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는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 광주야구소프트볼인의 밤 행사를 갖고 최우수선수를 비롯해 감독상과 타격상 등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는 김기훈과 정해영을 비롯해 문태균(송정동초 6년), 정지태(충장중 3년), 박시원(광주일고 2년), 김훈민(서석초 6년) 등 6명이다.

최우수감독상은 정영재(광주일고·제7회 황금사자기 전국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수), 김재덕(동성고·제73회 청룡기 전국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수), 박태범(송정동초·2018전국유소년야구대회 U-12 우수), 나길남(충장중·2018전국유소년야구대회 U-15 우수), 양윤희(서석초·제18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수) 감독이 받는다.

최우수타격상은 고도영(서석초 6년·35타석 27타수 20안타), 김도영(동성중 3년·36타석 31타수 16안타)이, 우수타격상은 박성훈(송정동초 6년·38타석 29타수 18안타), 서영진(충장중 3년·39타석 33타수 16안타)이 각각 수상한다.

공로패는 광주일고 이승오 교장, 동성고 김영길 교장, 송정동초 김영희 교장, 서석초 김미옥 교장, 진흥고 강의원 전 야구부장, 광주시체육회 소프트볼팀 이정호 감독이 받는다.

김경호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감사패, 김봉균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은 심판상을 받는다.

광주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는 “올해를 무사 무탈히 보내면서, 고생하신 야구소프트볼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손흥민 2경기 연속골 ‘뜨거운 12월’

레스터시티전 1골 1도움...토트넘 2연승

손흥민(26·토트넘)이 ‘몰아치기’를 시작하며 지난해에 이어 차가운 12월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터뜨렸다.

시즌 5호(리그 3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후반 13분 벨리 알리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며 2-0 완승을 주도했다. 6일 사우샘프턴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 행진이다.

이번 시즌 개막을 전후로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A매치까지 쉴 새 없이 대표팀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 난에 시달렸던 손흥민은 11월 A매치 휴식기의 충분한 휴식을 계기로 완벽히 살아났다.

지난달 25일 첼시와의 리그 13라운드에서 기다리던 이번 시즌 리그 첫 번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사우샘프턴과의 15라운드와 레스터시티와의 16라운드 경기에서 연속 골로 기세를 이어갔다. 최근 4경기에서 3골이다.

첼시전에선 토트넘에서의 50번째 골, 사우샘프턴전에선 유럽 무대 통산

100골이라는 뜻깊은 기록도 남기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첼시, 사우샘프턴전에선 추가골을 터뜨렸으나 이번 레스터시티전에선 토트넘의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활약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날 토트넘은 공격의 핵심인 해리 케인과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선발에서 제외했는데, 전반엔 공격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한 방이 모든 걸 바꿔놨다. 골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세르주 오리에의 패스를 받아 중앙 쪽으로 들어온 손흥민은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특유의 날카로운 원발 감아 차기로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의 골 덕분에 토트넘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후반엔 손흥민의 패스와 알리의 마무리가 더해지면서 추가골이 터지며 토트넘은 리그 연속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지난해 손흥민은 12월 초 왓퍼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시작으로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 연속 골을 폭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FC 서울 K리그1 잔류 확정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K리그1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FC 서울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박주영이 동점골을 넣으며 1-1을 만든 뒤 FC 서울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FC 서울은 1, 2차전 득점 합계 4-2로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공사 이해경 제주컵유도 ‘금’

광주도시철도공사 이해경(22)이 2018제주컵국제유도대회에서 우승했다.

이해경은 지난 7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48kg급에서 진경희(포항시청)를 한판승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해경은 지난 10월 제99회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다. /최진화 기자

-78kg급에 출전한 김성연(27)은 8강에서 부전승으로 4강에 올랐고, 기권패로 동메달을 기록했다. 황예슬(제주특별시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8 제주컵 국제유도대회는 지난해 대한유도회로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제대회로 인증 받았다. /최진화 기자

윤덕여호 여자월드컵 최악 조편성

프랑스·노르웨이·나이지리아와 A조

2회 연속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윤덕여호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프랑스,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와 격돌한다.

FIFA 랭킹 14위인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라센 뒤지칼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 조추첨에서 프랑스(3위), 노르웨이(13위), 나이지리아(39위)와 A조에 편성됐다. /연합뉴스

프랑스, 노르웨이는 한국 여자축구가 처음 월드컵 본선을 경험했던 2003년 미국 대회 때 같은 조에서 경기를 치른 팀이다.

한국은 역대 여자 월드컵에서 통산 세 번째이자 2회 연속 본선에 진출했다. 한국은 개최국 프랑스와 A조에 속하면서 한국 시간으로 내년 6월 8일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개최국 프랑스와 개막전을 치르는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